

2007년도 각 분야별 결산



최 충 집 축산기획 상무이사
(주)마니커 전략기획실

2007년도
사육부문
결산

소비가 크게 감소해 약 30% 수준까지 감소되었
다가 보도가 잠잠해지면 소비가 다소 회복되기

〈표 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주간별 일평균 판매
수수의 변화(2006년~2007년)

주간별	일평균 판매수수	소비 감소량	비고
06년 11월 23일	614,175	0%	1차 : 06년 11월 22일 시신고
06년 11월 27일	421,857	31%	11월 26일 시보도, 2차 : 2월 27일
06년 12월 04일	485,375	21%	
06년 12월 11일	497,302	19%	3차 : 12월 10일 4차 : 12월 11일
06년 12월 18일	575,215	6%	
06년 12월 25일	534,725	13%	
07년 01월 01일	490,719	20%	
07년 01월 08일	486,321	21%	
07년 01월 15일	514,758	16%	
07년 01월 22일	493,060	20%	5차 : 1월 19일
07년 01월 29일	543,724	11%	
07년 02월 05일	530,801	14%	
07년 02월 12일	518,186	16%	6차 : 2월 9일
07년 02월 19일	503,309	18%	
07년 02월 26일	616,338	0%	
07년 03월 05일	513,408	16%	7차 : 3월 6일 최종발생
07년 03월 12일	539,295	12%	
07년 03월 19일	516,230	16%	
07년 03월 26일	584,002	5%	
07년 04월 02일	539,400	12%	
07년 04월 09일	554,941	10%	
07년 04월 16일	576,062	6%	
07년 04월 23일	554,182	10%	
07년 04월 30일	632,027	-3%	5월 2일 시 종식 보도-소비회복

2007년 한해는 작년 11월 22일부터 금년 3월 7일까지 7차에 걸친 조류인플루엔자(HPAI :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 보도에 따른 소비감소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업계의 경쟁적 종계입식에 따라 발생한 생산량 과잉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해가 된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양계산업이 호황을 맞았던 것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 또한 그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07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소비 감소

2006년 11월 22일 익산 함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2007년 3월 6일 천안 동면에서 최종 발생될 때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발생됐다. 발생사실에 대한 보도 직후

* 계육협회 4개사 : 마니커, 하림, 동우, 체리부로
* 소비감소량 계산은 2006년 11월 23일 판매물량을 기준량으로 계산
* 작성일자 : 2007년 11월 10일
* 자료출처 : 한국계육협회

도 했으나, 발생사실을 보도할 때마다 소비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발생일자와 보도 일자, 소비량 변화를 보면 <표 1>과 같이 아주 명확한 상황을 보인다.

다만, 금년 상황이 2003년~2004년 사이 발생된 AI상황보다는 소비감소폭이 좁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이 종전보다는 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는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보도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매년 철새이동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이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차단방역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소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2. 병아리 가격과 종계 도태 물량의 변화< 표 2> 참조)

2007년 생산물량이 증가해 불경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6년 종계입식량 통계로부터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에 비해 2007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통계 수치상 낮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축보다는 노계 생산 주령 연장 및 환우 시행 등이 2007년 3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4월 12일 병아리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질 때

만 하더라도 금년처럼 오랫동안 100원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듯하다. 북 경기 이후 잠깐 반짝했던 육계가격 때문에 병아리 가격이 조금 올랐던 때를 제외하면 금년 병아리 가격은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종계·부화업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육계 경기도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8월 이후 종계 도태 물량이 증가하고, 9월~10월에는 종계 조기 도태까지 가세하고 있어 생산물량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의 조기 도태 움직임은 계약농장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조기 도태를 유도, 실제로 상당수의 종계를 조기 도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9월~10월 조기 도태 계군은 50주령 이상의 노령계군과 생산성이 낮은 계군에서

<표 2> 연도별 월별 육용실용계 가격 (단위: 원/수)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150	100	578	600	356
2월	100	225	600	600	500
3월	278	594	600	600	311
4월	250	600	600	350	144
5월	127	600	633	130	100
6월	113	600	700	433	100
7월	111	426	406	478	156
8월	282	463	422	567	189
9월	344	500	256	600	221
10월	150	500	161	533	
11월	213	500	150	566	
12월	200	500	483	600	
평균	193	467	466	505	231

* 유통비용 20원/수 제외 비용
* 자료출처: 대한양계협회



2007년도 각 분야별 결산

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400원까지 가격이 급등한 병아리 가격으로 다시 종계의 정상적 도태가 이뤄지지 않고 연장 또는 환우까지 시행되고 있어 순간 반짝하게 하는 경기로 종식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내년 2008년 2월~3월 다시 크게 증가하는 병아리 잠재력은 종계 조기도태, 병아리 가격 양등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불경기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3. 봄철의 호흡기 질병과 성적 저하 현상 발생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금년에는 호흡기 질병 상황이 보다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차이도 심하게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 2월~3월까지 나타나던 호흡기 질병이 금년엔 5월~6월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성적 편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농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내 All - Out 동시 유지 시행을 권장하고 싶다. 지역 내 모든 닭을 출하하고(All - Out) - 단지 2주일의 휴지기후 입추 개사를 진행한 경우도 질병의 고리를 차단한 경우가 있어 - 지역내 농장과 계열업체가 서로 잘 협의·조정한다면 효과적으로 질병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4. 병아리 가격과 병아리 품질

병아리에 있어서 가격과 품질의 상반 관계를 실감한 한해로 생각된다. 병아리 가격이 높았던 1월~2월을 제외하고는 병아리 품질 문제가 특별히 대두된 농장이 거의 없었다.

이는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유지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종계가 조기 도태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11월 들어 병아리가 다소 부족한 현상을 보이며 연장 생산 등의 기미가 있어 병아리 품질이 조금은 염려된다. 전반적으로 병아리 품질은 양호했던 한해로 기억된다.

5. 사료가격 양등과 사료의 품질

국제 원유시장(Oil)의 급등은 국제 곡물가격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내 바이오 에너지 열풍은 옥수수를 에탄올의 원료로 강제 배정하는 사태까지 변해가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 사료가격은 2007년 약 25% 수준 인상(2006년 대비)됐다. 다만, 사료의 품질은 사료가격 양등에 비해 잘 유지됐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전년대비 비슷한 사료요구율을 견지했다. 이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중국산 원료가 비교적 적게 들어왔던 것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료업체간 사료 품질 경쟁이 원료가격의 양등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다.

사료가격 양등의 문제는 2008년 더욱 심각하


다. 2007년 12월까지 사용되는 사료원료곡물의 가격은 톤당 옥수수 \$230, 대두박 \$280 수준이다. 이에 비해 2008년 1월~2월부터 사용 예상되는 옥수수는 \$280, 대두박 \$410 수준으로 크게 오르고 있으며 그나마 그 사용 예정기간도 상반기내에만 국한된다.

2008년 하반기 물량의 가격은 아직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원료가격 양등에 따른 2008년도의 사료가격 인상은 12월 대비 20~25% 수준이며(내년 상반기까지) 하반기 가격 인상분은 그 끝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최소 30~40% 수준 이상 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 이에 적극적인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친환경 축산물 제도 공표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2007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된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인증이 시작됐다. 인증 초기에는 농가로부터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에 정부의 자금 지원의 우선권과 향후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 등에 힘입어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로부터 생산되는 친환경 축산물이 소비자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상승작용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다음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작성된 가금류농가 AI 차단방역 준수사항이다.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어 우리들의 가장 무서운 적, AI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합시다. 

〈참조 1〉 가금류농가 AI 차단방역 준수사항

1. 농장은 인근 가금류 농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유리하며,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호수·연못·수로 인근에 가금류 농장을 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야생조류와 접촉할 기회가 높은 저수지, 하천,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는 야생조류의 분변 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3. 철새도래지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철새 등 야생조류가 있는 소하천 등에 낚시 등을 하기 위한 방문을 금지하여 농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4. 농장 출입차량 및 방문객에 대한 통제와 출입시에는 소독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농장 관리인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및 소독실시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해 질병발생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5.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농장에 들어갈 때는 소독 및 착용했던 옷과 신발을 농장전용으로 교체하는 기본적 방역조치를 생활화해야 한다.



2007년도 각 분야별 결산

6. 한 사육지에서 다른 사육지로 이동해 출입을 할 때 신발을 소독하거나 다른 신발 또는 덧신을 신고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7. 백신접종주사기, 부리를 자르는 디비킹(부리 자르기), 닭 이동에 사용되는 박스, 트랙터, 경운기 등 타 농장으로부터의 축산기구 반입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8. 약품배달은 시키지 말고, 직접 방문 구입하거나 택배를 이용한다.
9. 일가친척과 인근주민이 가능한 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농장주 등 농장 근무자들은 다른 농장 방문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및 행사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10. 농가에 근무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국가에서 온 다른 농장 친구·동료와의 접촉할 수 있으므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 방역지침 참조).
11. 농가 인근 인삼밭 등 농지에 계분을 살포할 경우 철새 등 야생조류의 먹이가 있는 계분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계분 살포를 자제하고 계분이 살포된 경우 인삼밭 주변 방문을 금지하고, 계분의 먼지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2. 추수기에 가금 사육농가 주변 논, 밭 등에 철새 등 야생조류의 먹이(범씨 등)를 제거하여 야생조류에 의한 질병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13. 특히, 농장주는 닭·오리 사육농가 방역수첩을 철저히 숙지 및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 2>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외국인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자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알, 햄, 소시지, 육포, 치즈 등

2. 농장 근무시 준수사항

- 농장입구에서 차량 및 사람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축사 출입전에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들어간다.
 - 축사입구에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축사 밖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함께 소독한다.
- 축사에서 나올 때 입구에서 손과 신발, 사용 장비를 소독한다.
- 축사입구 소독조는 2일에 한번씩 갈아준다.
-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복은 2~3일에 한번이상 세탁해 착용한다.
- 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농장주에게 알린다.
- 소독약제 사용은 약품의 희석비율 대로 사용토록 한다.

3. 일과 후 준수사항

- 타농장 방문은 금지하고 급한 용무는 가급적 전화를 한다.
- 가족·친구 등을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한다.
- 외출할 때는 외출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외출한다.
- 귀가 즉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목욕한다.